

모든 몸이 환대받는 교회와 사회를 향해 타래의 첫 3년을 함께 이어주세요!

기독교페미니즘플랫폼 타래
Tarae: Christian Feminist Collectiv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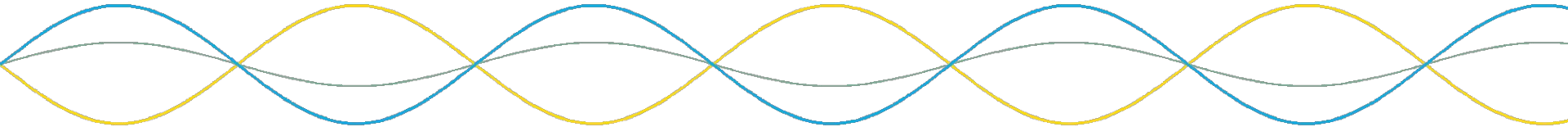
모든 몸이 환대받는 교회와 사회,
무엇이 가로막고 있을까요?



“

개신교가 배척의 아이콘이 되어가는 게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타래가 올해 8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한 응답자가 남긴 말입니다.



이 마음은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95.6%

응답자 203명 가운데 한국 기독교와 교회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전혀 성평등하지 않다 53.7%
성평등하지 않다 41.9%

가장 답답한 현실로 꼽은 것

01	주요 의사결정권을 남성이 독점하는 구조	29.1%
02	성소수자에 대해 무지하고 배타적인 태도	25.6%
03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상황에 무감각하거나 관대한 분위기	18.2%

타래 설문조사(2026년 8월, 203명 응답)

배제의 신앙이 복음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 안의 이 질서는 담장 밖으로도 번져, 사회가 공존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처음부터 다른 길을 가리켜 왔고, 한국 교회 안에도 그 길을 붙들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여성과 이방인, 죄인이라 불리던 이들과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남자도 여자도 하나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독교 여성운동과 여성신학

수십 년 동안 성서 속 평등의 언어를 다시 발견하며 대안적 해석의 틀을 쌓아 왔습니다

교회의 가장자리에서

성소수자를 비롯한 이들이 자기 존재를 지우지 않는 신앙의 언어를 찾아 왔습니다

새로운 세대

이 유산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신앙을 다시 해석하며 공동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평등과 환대의 신앙을 붙들어 온 목소리는 아직 충분히 들리지 않습니다

여성신학과 기독교 여성운동

여성신학과 기독교 여성운동이 쌓아온 깊이 있는 지식은 주로 강의실과 연구 공동체 안에 머물러, 일상의 언어로 대중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페미니즘과 퀴어 운동

페미니즘 운동과 퀴어 운동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궈온 귀한 실천은 서로 만나 함께 쌓여갈 통로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질문해온 사람들

교회 안에서 차별을 겪고 질문을 던진 이들의 목소리는 공동체 안에서 고립되거나 한 사람의 경험으로 남곤 했습니다.

그 사이 공론장에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소리는 배제의 언어가 되었고, 기독교 페미니즘은 낯설거나 불편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설문 응답자들이 타래에 바란 것도 바로 이런 문제와 연결됩니다



“기독교 페미니즘을 주제로 다양한 주체가 자기 목소리를 내면 좋겠습니다!”



“주변부의 목소리가 두텁게 들리는 통로가 되길…”



“더 많은 이들이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는 공간이 되길 바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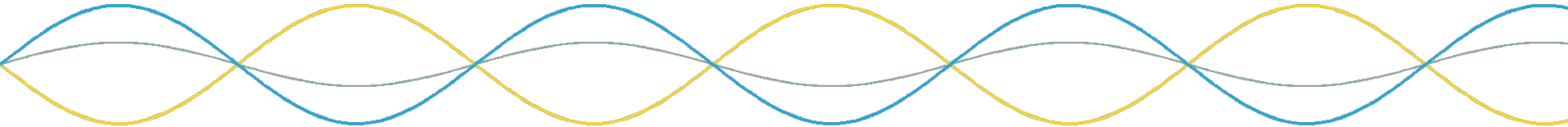


“타래라는 이름처럼 기독페미니스트들이 서로 얽혀가며 새로운 생각과 문화를 열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세요!”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은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잇고 그것을 교회 담장 너머로 넓혀갈 기반이었습니다

지금이 그 기반을 세울 때입니다

앞 세대 여성신학자와 활동가들의 경험은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의 질문은 담아낼 그릇이 없으면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지금 그 기반을 세운다면 앞 세대의 지혜는 다음 세대에게 건네지고, 새로운 세대의 질문은 새로운 신앙의 언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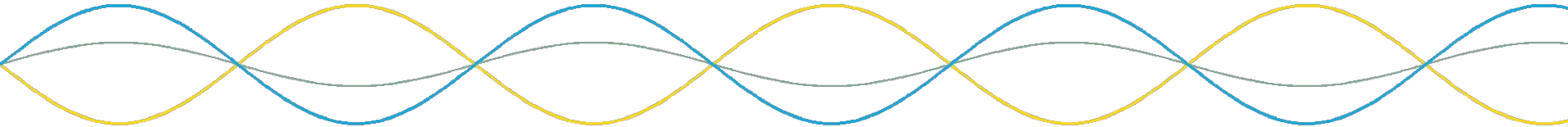
02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타래는
페미니즘의 언어로 신앙을 다시 쓰고,
모든 몸이 환대받는 교회와 사회를 지향합니다

신학의 언어를 넘어 일상의 언어로, 교회와 강의실 바깥에서 동시대의 방법으로 더 많은 이에게 다가갑니다.
배제에 맞서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자리를 평등과 환대의 신앙과 문화로 채워가는 것이 타래가 하려는 일입니다.



타래는 이 풍경을 만들어갈 플랫폼입니다

교단과 기관 안에서
여성의 자리를 넓혀온 운동

성서를 다시 읽으며
신학의 언어를 바꿔온 여성신학

차별에 맞서며 성평등을 위한
현장의 활동

타래는 그 사이를 오가며 서로 다른 운동과 사람, 지식을 잇고,
그 성과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도록 넓히는 일**에 집중하며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타래가 하는 일

01

대안적 언어와 해방의 서사

지워지거나 가려졌던 여성과 소수자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대안의 언어로 다시 씁니다. 기록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됩니다.

첫 3년의 활동

구술 기록과 단행본 발행, 정기 뉴스레터와 웹매거진 발행, 대중 콘텐츠 제작

02

안전하고 평등한 플랫폼

만나고 흩어지고 다시 엮이는 안전하고 평등한 시간과 공간을 엽니다. 쉽게 꺼내지 못했던 질문을 자기 경험으로 나누고, 만남이 공동체와 실천으로 자라나도록 돕습니다.

첫 3년의 활동

기독교 페미니즘 강좌, 독서모임과 세미나, 찾아가는 워크숍, 단체·공동체 간 협력 기획

03

축적과 확산

기독교 페미니즘의 언어로 지식의 토대를 쌓고, 일상의 언어와 창조적 활동으로 널리 퍼뜨립니다. 연구와 창작의 성과가 시민사회와 만나게 합니다.

첫 3년의 활동

창작자·예술가와의 협업, 기독교·젠더·사회 담론 생산, 번역·출판, 신진 필진·활동가 양성

3년 뒤의 타래를 상상해봅니다

한 사람에게

여성과 소수자가 신학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을 말하는 주체로 섭니다. 홀로 품어온 질문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되고, 한 사람의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람에게 해방의 언어가 됩니다.

공동체에

교회에 머무는 사람과 떠난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고 같은 자리에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안과 밖의 여성과 소수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신앙을 이어갈 관계망이 곳곳에 생겨납니다.

교회에

여성과 소수자의 경험이 설교와 교육, 신학의 자리에서 함께 읽히는 신앙의 자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피하지 않는 공동체가 늘어나고, 그 언어가 쌓여 환대와 평등의 문화를 만듭니다.

사회에

기독교 안에도 평등과 환대의 전통이 있다는 사실이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차별이 정당화될 때, 신앙의 언어로 공존을 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종교와 젠더에 관한 대화가 필요할 때, 시민사회는 타래를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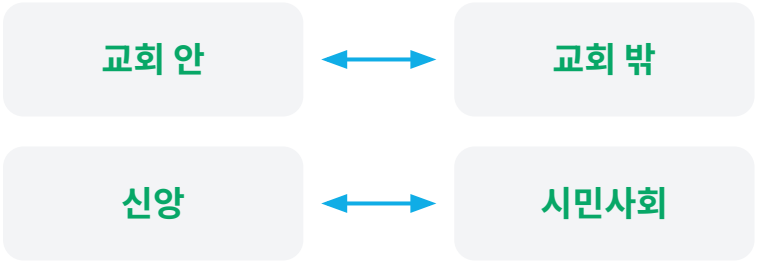
03

타래는 무엇을 바탕으로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갈까요?

타래는 이제 막 출발한 단체이지만, 타래를 만드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타래의 힘은 그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와 그들이 쌓아온 관계에서 나옵니다.



경계에 서 있는 자리



타래를 만드는 사람들은 교회 안과 밖, 신앙과 시민사회 사이의 경계에서 오래 활동해 왔습니다. 교회의 언어로 말할 줄 알면서도 교회가 외면해온 질문을 피하지 않았고, 시민사회와 인권의 현장에서 신앙인으로서 함께 서 왔습니다.

**어느 한쪽에 갇히지 않는 이 자리에서, 타래는 교회에 머무는 사람과 떠난 사람,
신앙인과 시민사회 모두에게 말을 걸며 흩어진 사람들을 잇습니다.**

핵심역량

비판적 해석과 지식 생산

성서와 신학, 교회 문화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지식과 담론을 생산합니다.

신약학과 여성신학, 법학과 사회학, 보건학을 연구해온 전문위원들이 이름만 올린 자문단이 아니라 실제로 원고를 쓰고 강의를 맡습니다.

대중적 소통과 콘텐츠 기획

교회 안의 사람에게는 낯설지 않고, 교회 바깥의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은 언어로 풀어냅니다.

젠더 관점의 대중문화 비평과 강연,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사무국의 감각, 출판과 문화기획, 연극과 사진 등 창작 현장의 경험이 한 조직 안에 있습니다.

평등한 대화와 관계 형성

신학적 지식이나 교회 소속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만나 질문하고 배우는 평등한 대화의 장을 만듭니다.

청어람ARMC에서 14년간 기독교와 시민사회를 잇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경험과, 믿는페미·큐앤에이·서울YWCA·그리스도인 네트워크로 이어진 현장의 연결망이 바탕입니다.

신앙의 질문을 대중의 언어로 옮겨온 경험

대표 오수경

20여 년 동안 기독교 청년 운동과 아카데미 운동에 몸담았습니다. 성소수자 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등 신앙과 인권이 만나는 현장에서 교회와 시민사회를 잇는 담론 형성과 확산에 기여합니다.

사무국장 배지은

‘믿는페미’에서 기독교 페미니즘을 대중 운동으로 일궈 왔고, 젠더거버넌스 현장에서 정책과 시민사회를 이어 왔습니다.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감각으로 운동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도록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후원회장 서소영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사학과 부교수로, 한국과 동아시아의 의학사를 연구하며 몸과 젠더의 역사를 탐구해 왔습니다. 연구와 현장이 서로를 비추도록 학문적 기여를 더하고, 타래를 지지하는 이들의 관계를 넓고 단단하게 엮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와 사무국,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회, 후원회로 이어지는 조직의 틀은 이 경험이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함께 쌓이도록 뒷받침합니다.

운영위원

현장에서 활동을 기획하고 이끄는 사람들

김은선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남이해
믿는페미 활동가

서다은
한국교회를향한퀴어한질문
큐앤에이 활동가

박소영
서울YWCA 여성운동팀
실무활동가

박혜은
문화기획자·
독립서점 '에밀앤폴' 운영

최혜영
사진가·성평등 교육 활동가

전문위원

신학과 목회, 법학과 사회학, 의학,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 연구와 실천을 이어온 사람들

강효원	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정원	여름교회 목사
김한나	하와이대학교 사회학 박사수료
남인우	극단 '북새통' 연출가
박다혜	법무법인 '고른' 변호사 (감사)
박은혜	국립암센터 예방의학 전문의·보건학 박사
서나영	배우·평택대학교 교수
심에스더	성교육 강사·상담사
오현선	목사·공간 엘리사벳
이은경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이혜영	PCUSA 국제에큐메니칼담당자
정혜진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조민아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04

함께 엮어주십시오

타래는 혼자 엮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함께 엮고자 합니다. 한 가닥으로는 약한 실도 함께 엮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후원은 타래의 재정을 채우는 일을 넘어, 흩어진 목소리를 엮는 실 한 가닥이 되는 일입니다. 당신의 후원으로 흩어진 목소리가 하나의 무늬가 됩니다.



타래를 엮어갈 실을 놓아주세요

날실기금 – 정기후원

월 200만 원

정기후원자 100명

베틀에 날실이 팽팽하게 걸려 있어야 씨실이 오가며 무늬를 짤 수 있습니다. 타래가 긴 호흡으로 모임과 강좌와 기록을 꾸준히 이어가게 합니다.

씨실기금 – 일시·프로젝트 후원

1,000만 원

씨실은 날실 사이를 오가며 새로운 무늬를 만듭니다. 인터뷰 기록과 출판,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창작자·예술가와의 협업을 위한 씨드머니입니다.

당신의 후원으로 가능해지는 일들

01

활동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정기후원은 상근 활동가와 기본 운영을 받쳐, 강좌와 모임과 기록이 한 번의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게 합니다.

02

시간과 품이 드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술 기록과 출판, 창작자·예술가와의 협업처럼 오래 공들여야 하는 일에 과감히 나설 수 있습니다.

03

타래가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교단이나 기관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기에, 타래는 필요한 질문을 주저 없이 던질 수 있습니다.

04

3년 뒤, 오래 걸어갈 기반이 생깁니다

창립의 시간에 놓인 후원이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기반으로 이어져, 타래가 오래 걸어갈 토대가 됩니다.

후원 안내

후원 목표

2027년 2월까지 정기후원자 100명(월 200만 원) 일시후원자 50명(1,000만 원)

후원 방법

CMS 후원 https://online.mrm.or.kr/KHc2NLk

계좌 후원 **[기부금 영수증 발급용]**
국민은행 009901-04-208147 재)한빛누리(타래)
[기부금 영수증 미발급용]
기업은행 301-121714-04-012 기독교페미니즘플랫폼타래

PAYPAL후원 https://www.paypal.com/paypalme/femitarae

후원 혜택

타래 프로그램 참가비 할인 · 후원자 라운드테이블 초대와 네트워킹
타래 발행물 우선 발송 · 매년 활동과 재정 보고

타래와 함께
다음 이야기를 엮어주세요

- 웹사이트 www.femitarae.com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X @femitarae
- 이메일 hey@femitarae.com